

OECD 국민계정 작업반회의 결과

I. 회의내용 및 결과 개요

1. 회의개요

○ 회의 일자 및 장소

- 회의 일정 : 2007. 10. 3(화) ~ 10. 5(금)
※ 출장기간 : 2007. 10. 2 ~ 10.7(4박 6일)
- 회의 장소 : 프랑스 파리(OECD 본부)

○ 참석자

- OECD회원국 대표를 비롯하여 IMF, Eurostat 등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100여명 참석
- 한국 대표 :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전경배 차장, 통계청 통계 분석과 김준태 사무관, OECD 대표부 윤면식 주재관

2. 주요회의내용

- 유엔의 국민계정체계 기준인 1993 SNA 개정(Rev.1)작업은 2008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2014년까지 SNA

Rev.1을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됨

- SNA Rev.1에서는 연구개발(R&D) 지출을 중간투입이 아닌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토록 함
- 서베이 표본조사를 통한 재고증감 추계를 권고
- OECD국가의 분기GDP 수정폭 평가 : 우리나라의 수정폭은 절대크기로는 크지만 국별 성장률을 반영한 상대적 크기는 최소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OECD에 제공하는 연간 국민계정자료를 제공된 조사표 양식에 의해 송부하고, 분기 GDP자료도 통계공표 즉시 송부하도록 요청됨
-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FISIM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 연쇄가중법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도입을 촉구
=>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기준년 개편(2009년도) 시 국민소득통계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할 것임을 언급

3. 회의 시사점

-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통계작성기관들의 SNA 개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 동 논의내용의 반영 가능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대비함으

로써 개정안 확정시 이를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OECD에 대한 통계제공의 적시성 및 메타데이터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각국통계기관 및 국제기구에서의 통계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도 중요

4. 2008년 국민계정 전문가회의 일정 및 과제

- 2008년도 국민계정 전문가회의는 2008. 11. 13일로 예정
- 제안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음
 - 1993 SNA Rev.1 개정관련 이슈
 - GDP통계의 통계적 불일치 조정(Balancing)에 대한 각국의 사례 비교
 - 벤치마킹기법과 이에 따른 수정정책(Historic Revision)에 대한 각국 비교
 - R&D 측정
 - 교육 및 보건서비스 등의 물량지표에 의한 산출액 추계

II. 회의세부내용

1. 국민계정체계 개정(SNA Rev.1)

- 유엔의 국민계정체계 기준인 1993 SNA 개정(Rev.1)작업은 2008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국민계정체계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ISWGNA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의 1993 SNA Rev.1 초안은 44개 주요이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전반적 국민계정체계를 포괄하는 volume 1과 위성계정 등 확장개념에 대한 volume 2로 구성되어 있으며, Volume1은 2008년 3월, Volume 2는 2009년 3월 UN통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음
- 2008년까지 UN통계위원회에 대한 상정 일정
 - 공급사용표에 대한 chapter의 상정 및 의견 수렴
 - chapter 3-17에 대한 수정안을 2007년 말까지 상정
 - chapter 1-2를 2008년 초까지 개정
 - UN통계위원회에서는 2008년 2월말 까지 평가 완료 후 1-17장까지의 웹버전을 완성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2014년까지 SNA Rev.1을 대부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OECD는 반영일정이 미확정된 국가들도 2014년까지 실시할 수 있기를 권고하고, 최종안이 완성될 때까지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속적인 의견제시를 요청

2. 지적재산생산물(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측정 매뉴얼 작성

- OECD와 Eurostat는 SNA Rev.1의 개념*에 부합한 지적재산권의 자본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측정에 대한 매뉴얼(Handbook on deriving capital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초안을 2008년 말을 목표로 작성중에 있음

* 현행 1993 SNA에서는 연구개발(R&D) 지출을 고정자본형성이 아닌 중간투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미래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개발과 유사한 다른 활동들도 고정자산형성을 위한 투자로 간주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1993 SNA Rev.1에서는 고정자산으로 처리

- 본 매뉴얼에서는 지적재산생산물의 자본측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추계방법을 제시
 - OECD의 소프트웨어 T/F(2003)와 93 SNA Rev.1의 개념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및 DB 측정방법, R&D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총고정자본형성 측정방법 등을 제공
- 향후 광물탐사 및 평가, 오락문화 또는 예술품 원본의 소유권 기록에 대한 방법을 첨가할 예정이며, 각국의 지속적인 의견의 필요성을 강조

3. 광물탐사 및 평가(mineral exploration and evaluation) 측정

- 1993 SNA Rev.1에서는 “광물탐사(mineral exploration)” 생산자산을 광물탐사 및 평가(mineral exploration and evalu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분류기준에 부합토록 포괄범위를 설정할 것을 권고
- “광물탐사 및 평가”와 “지하자산(sub-soil)”을 별개자산으로 구분하고 광물탐사 및 평가는 생산자산으로, 지하자산은 비생산자산으로 기록
- 광물탐사는 특정기업의 활동에 따른 실제 시장가격으로 평가
 - 광물탐사 및 평가는 SNA원칙에 따라 제3자가 동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시장가격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중간소비,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생산물세 등의 합계로 측정

4. 서베이를 통한 재고증감 추계

- 최근 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0여 개 국에서의 재고증감 추계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재고증감의 GDP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기업대상 서베이, 시장조사, 상품흐름법, 잔차처리, 지표를 이용

한 계량모형, 질적자료(qualitative data) 등 크게 6가지 방법에 의해 재고증감을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조사대상 20개 국가중에서 13개국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국에서는 상품흐름법에 주로 의존

- 재고증감측정에 있어 서베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서베이에 따른 표본오차의 크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재고증감에 대한 계절조정계열을 작성할 때는 음(-)의 값을 갖는 재고증감계열에는 승법형(multiplicative) 계량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및 기말수준에 각각 계절조정후 차감하는 간접법이 계절조정계열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호주 등 일부국가에서는 현재 간접법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5. OECD 국가의 분기 GDP의 수정

- R. McKenzie와 Z. Adam(OECD)은 OECD 18개국의 분기 GDP 속보치 전년동기비와 SA전기비가 추후 수정되는 수준(revision history)을 비교하는 기 연구 결과(Tosetto & Lequiller, 2006)를 수정하여 발표
- 동 자료는 OECD 자료(1994.4/4~2006.3/4)를 이용하여 분

기GDP가 최초 공표된 후 5개월 이내의 단기적 수정폭 뿐만 아니라 1~3년 이후에 걸쳐 수정되는 중장기적 수정 폭도 함께 비교

- 우리나라 분기 GDP통계의 수정폭은 절대크기로는 비교국에 비해 다소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별 성장률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한 상대오차(RMAR: relative mean absolute revision) 기준으로는 장·단기 모두 원계열 전년 동기비와 계절조정계열 전기비에서 최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본, 호주, 핀란드 대표 등은 국민계정 추계기법의 변경시기, 벤치마킹의 실시빈도 등에 따라 수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게 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통계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동 논문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강조

6. 연간 국민계정 자료 제공

- OECD는 각국으로 부터 연간국민계정 자료와 메타데이터를 제공 받아 국별, 지역별 통계별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간행물 발간을 통해 전세계 통계이용자에게 제공
- OECD와 Eurostat는 통일된 조사표를 완성하였으며, 각국 통계작성기관은 동 조사표양식을 이용하여 통계공표 즉시 OECD에 송부할 것을 요청

- 현재 OECD는 신조사표 양식과 개념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로의 개정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 뉴질랜드 및 미국만이 동 양식에 의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료가 최초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있음
- 각국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적시성, 포괄성 및 시계열길이 등에 있어 과거보다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table 2000(산업별 및 자산형태별 고정자산) 및 table 2200(총고정 자본형성) 작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 비EU국가들은 가능한 한 신속히 COFOG(일반정부의 목적별 지출) 2자리 기준으로 보건, 교육 및 사회지출 등 최소 3개 부문에 대한 자료를 OECD에 제공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Eurostat는 2007년 말까지 COFOG 통계 작성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 예정에 있음

7. 분기 국민계정 자료 제공

- OECD.Stat(OECD data warehouse)에서는 각국에서 공표되는 통계를 매일 아침 수정하여 제공
- 최근 일부국가에서 통계공표일이 지난 후 OECD에 통계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국에서는 통계공표 즉시 분기GDP통계를 제공해야 함을 주지하고 통계공표일정도 각국 통계기관 홈페이지 및 OECD에 사전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또한 OECD는 통계추계방법의 변경, 기준년 개편, 벤치마킹수정 등 통계작성의 주요 변경내용 등을 즉시 제공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음
-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4개국에서는 FISIM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 연쇄가중법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연쇄가중법 도입을 촉구
- 우리 대표단은 기준년 개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통계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할 예정임을 언급

9. 기타

- 이 밖에 다수의 회원국들이 분야별 GDP 또는 부속계정 등의 편제 경험을 발표
- 브라질, 인도, 칠레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민계정 작성방법을, 캐나다는 연금기금의 위성계정을,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가계의 비금융자산 편제경험을, 미국과 네덜란드는 R&D 위성계정 개발 경험, 네덜란드, 일본, Eurostat는 환경위성계정 작성 사례를 각각 발표

회의자료(원문) 소재정보 :

http://www.oecd.org/document/42/0,2340,en_2649_34245_38677418_1_1_1_1,00.html